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요셉 성월 · 사순 제4주일
제34권 18호(가해) 2014·3·30

[묵상]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리라."

인간은 누구든지 보이는 것을 보는 눈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리고 들리는 것을 듣는 귀와,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귀를 갖고 있다.
흔히들 인간은 무엇을 평가할 때
보이는 것을 보는 눈과 들리는 것을 듣는 귀로써
얻은 지식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그것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보는 눈과 들리는 것을 듣는 귀란
때로는 믿을 수 있지만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니
너무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의 전체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이는
자신이 속고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눈이란 손바닥을 보고 있는 동안 동시에
손등을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안영희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저녁 미사(사순시기)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교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생) 김지수 보나 & 김지에 크리스티나
주 일 낮 미사	(연) 고준희 제임스,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전시웅 요한,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이용식 베드로, 이남호 사라, 전연옥 마리아, 이만복 로사 (생) 김소연 프란체스카, 현시영 요셉, 정애나 세라피나 & 정린다 쥘마 & 정엘리스 클라라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기 상권(1Samuel) 16.1-7, 10-13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아 쉬 울 것 없 으 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소서.○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5.8-14

복 음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 음 요한(John) 9.1-41

영성체송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53	157	150
봉헌	377	259	272
성체	Power of Love	106	292
파견	364	158	103

올바른 성모신심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2) 가톨릭 교회 안에서 빛나간 성모 신심들

다. 베이사이드의 성모 신심

(이는 1970년부터 미국 베이사이드의 베로니카 루에켄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심 운동에 관련한 내용이다.)

다섯째 이와 관련된 철야 기도회에 참가하거나 순례를 조직하고 선전물을 간행, 배포하며 이러한 광신을 조장하는 사람은 그 누구이든 하느님백성의 신앙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이며, 지역 교회의 적법한 목자가 내린 결정(교회법 제212조 1항)을 거스르는 것이다.

당시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도 1988년 12월 20일자로 다음과 같은 공문을 교구의 모든사제와 단체장에게 보낸 바 있다.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 신문에 대한 신자들의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계속해서 나돌고 있는 베이사이드 유인물에 대해 많은 신부님들과 더불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관련 유인물은 그 어느 것도 교회 당국의인준을 받은 바 없으며, 사실상 그 내용은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자들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유사 영성에 기초한 신심들

이 밖에도 불투명한 모임들이 많다. 그중 하나는 ‘가계(家系) 치유를 위한 기도’ 모임이다. 이들의 기도 모임에는 광신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기도를 치유의 한 가지 방편으로 삼고 있다. 가계 치유를 위한 미사 봉헌을 중용하면서, 조상을 미사 제대 앞에 모이게 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미사 중에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미사 봉헌 후 수개월 뒤에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기도 모임은 그릇된 성모 공경 모임들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모임의 피해 사례 조사에 따르면, 치유를 빙자한 현금 강요는 물론, 건전한 신앙과 영성 생활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는 많은 신자들이 가시적 은총, 체험 등에 현혹되어 있는 까닭이다. 또한 교회가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가톨릭 교회의 성모 공경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기도를 풍요롭게 한다. 성모 공경의 신학적 기초는 성경 말씀(루카 1.30.42-45; 갈라 4.4참조)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충만한 은총의 여인이시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

이 특별한 인사는 성모 마리아 자신조차 당황할 만큼 천사의 입을 통해 전해진 축복의 메시지이다. <◆계속>

개안(開眼)의 여정

개안의 기쁨, 개안의 여정입니다. 깨달음의 기쁨,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입니다. 오늘 복음의 태생 소경은 우리 눈먼 인간을 상징합니다. 눈이 있다하여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눈 뜬 소경도 많 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눈이 열립니다. 예 전에 써놓은 ‘예수님은 봄이다.’라는 자작시입니다.

예수님은 봄이다 / 봄은 사랑이다
봄이 입 맞춘 자리마다 / 환한 꽃들 피어나고
봄의 숨결 닿은 자리마다 / 푸른 싹 돋아난다
예수님은 봄이다 / 봄은 사랑이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이 흡사 부활의 봄 같습니다. 봄이 입 맞춘 자리마다 봄꽃들이 환히 피어나듯 예수님을 만나자 눈이 열린 태생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자 깨달음을 주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갈망과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희망이 샘솟 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자 나를 찾는 사람입니다. 누구 나 의 근본적 갈망입니다. 하느님을, 나를 찾아 발견할 때 참 기쁨입니다.

광야인생을 압축하는 광야의 사순시기는 집중적으로 주님과 나를 찾는 시기입니다. 장미 주일이라 일컫는 오늘 사순 제4주일은 태생 소경처럼 주님을 만나 우리 역시 눈이 열리는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앞당겨 체험하는 날입니다. 하여 우리는 성령의 즐거움을, 영적갈망의 즐거움을 지니고 남은 광야 사순시기를 지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를 보고 알기 위해 있는 눈입니다. 눈이 있 어도 주님과 나를 못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발견과 더불어 나의 발견입니다. 이런 개안과

더불어 주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할 때 참 기쁨입니다. 이래야 잠에서 깨어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 세 상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 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이 보다 큰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태생 소경의 개안 과정은 그대로 우리의 평생 개안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심안(心眼)이 열린 그는 ‘예수님이 란분’에서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침내 영안(靈眼)이 활짝 열린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 다’라는 결정적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 활짝 눈이 열려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태생 소경입니다.

사순시기뿐 아니라 평생 개안의 여정, 깨달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고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봄 니다.(1사무 16,7 참조)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밖 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입니다. 주님을 찾는 개안의 여정에 항구할 때 우리 역시 점차 하느님 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주님 만드신 참 좋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수철 신부 /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원장

십자성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십자성호는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과 연관시키고, 하느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마와 가슴 및 양 어깨에 십자성호를 긋는 뜻은 이들 부위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십자 표시는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 에, 그 자체로 짙막하고 명료한 신앙 행위가 됩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사도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사순시기 †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저녁미사(오후 7시30분)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가 참여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진행은 제단체가 맡습니다.

- 사순 제4주간 금요일(4월4일): 양엄회
- 사순 제5주간 금요일(4월11일): 대견회
- 성 금요일(4월18일 오후 3시): 본당 신부님

- ◆ 부활 합동 판공성사: 4월9일(수)

- 참회예절: 오후 7시 저녁미사 중
- 고해성사: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사순시기 중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미사전후 고해성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순절 회생 애궁봉투

우리 가족의 회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궁봉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4월17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전례부 해설자 모임

- 일시: 오늘 주일(30일) 낮 11시미사후 곧
- 장소: 회의실(점심제공)
- 문의: 엄영숙 마리아 ☎(310)995-5662

- ◆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오늘 주일(30일) 오후 1시 성전
- 대상: 레지오 마리아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아치에스 행사는 도후이신 성모님께 대한 충성을 새로이 다짐하는 장엄한 예절입니다.
- 문의: 남성철 베네딕도 꾸리아단장 ☎(310)408-1443

- ◆ 평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본당신부님께서 부활 판공성사관계로 타성당으로 출장 가심

니다. 평일 저녁미사중 4월1일(화), 4월2일(수), 4월8일(화), 4월10일(목) 저녁미사 시간이 아침 9시로 임시 변경되오니 착오없이 바랍니다.

- ◆ 2014년 백삼위 한인성당 여성피절

- 일시: 5월3(토) 신심미사후 오전 9시45분~오후 2시
- 주제: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부제: 봉사자의 자세, 행복한 삶)
- 강사: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 오마우라 수녀님
- 대상: 백삼위 한인성당 모든 여성교우
- 주관: 소공동체, 성모회
- 회비: \$10(점심, 간식제공) * 신청서: 사무실 비치
- 문의: 김명재 아가다 소공동체부장 ☎(310)866-8778
권순길 세실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 ◆ 요셉회 장수 사진 촬영 연기

본당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와 날짜가 겹쳐 촬영일시를 부득이 연기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미정, 추후 발표합니다.
- 연락처: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 예비자 교리반 모집중입니다.

올 성탄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모집 및 전교기간: 4월30일까지
- 환영식: 4월27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5월1일~12월18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9시10분, 2층 교리실
- 세례식: 12월21일(주일)
- 문의: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30일(주일): P.V. 2반(제육볶음과 상추쌈 \$3)
* 주일학교(9학년 햄&치즈 샌드위치)
- 4월6일(주일): 소공동체(김밥 \$4)
* 주일학교(3학년/8학년 스파게티)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김재영 박종민 이경태 정병훈	강순복 김정엽 박현주 이근태 정훈모	강태홍 박기돈 양영관 이우성 한창주	고천용 박영룡 오상준 이종선 송마이클	김성택 박완철 유경자 이현주 이형삼	김성현 박정희 유영균 이형삼
합계: \$3,510						
주일미사 헌금: \$2,647						
2차헌금(오순절 평화의 마을 돕기): \$5,644						

성전헌금	강미순 박영룡 유영균 정훈모	강태홍 박완철 이경태 송마이클	고천용 박정희 이근태	김광자 박현주 이우성	김정엽 양영관 이현주	박기돈 유경자 이형삼
합계: \$3,865						
감사헌금: 익명 \$400						

공지사항

◆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야외14처) 스케줄

- 오늘주일(30일) : 5,6학년
- 4월6일 : 유치부, 1, 2 학년

◆ 첫영성체반 모집

- 일시 : 3월23일부터 8주간, 매주일 주일학교 수업시간중
- 대상 : 3학년~12학년(오전10시30분~낮12시 2층교실)
- 자격 : 부모중 한분이 가톨릭 신자로서 주일학교 등록학생
- 교리교사 : 안젤라 조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교장 ☎(213)258-8665

◆ 주일학교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제목 : 루카복음(영어), 노트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필사마감 : 4월13일까지 담당 교리교사에게 제출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20일)

◆ 고등부(9~12학년) 사순 피정중입니다.

-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 일시 : 3월28일(금)~30일(주일)에 돌아옵니다.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

◆ 한국학교 한글단어 경시대회

- 일시 : 오늘 주일 (30일) 2층교실, 전체학생 참여
- 시상식 : 4월6일(주일) 오전9시30분 학생미사중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 아그네스 성당 제20기 커피교육

- 일시 : 4월6일(주일) 오후 6시, 7일(월) 오후 1시
- 교육방법 : 강의 후 30회 실습
- 수강료 : \$200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버몬트 + 아담스)
- 문의 : ☎(323)731-4433

◆ 제 73차 남가주 한인M.E. 첫 주말 신청받습니다.

- 일시 : 5월2일(금)~4일(주일) 2박3일
- 장소 : 샌퍼난도 소재 아시아 피정센터
- 수강비 : 부부당 \$400(숙박/식사비 포함) *마감 : 4월22일
- 접수 : 백삼위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올리아 ☎(310)780-9055

소공동체 3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제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광자 엘리사벳 988-9925 3/15(주일)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증철 아브라함 936-9202 3/8(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3/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우성 요셉 793-0915 3/15(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박상원 야고보 999-5808 3/15(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정현 베네딕다 995-6342 3/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3/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951-4710 3/11(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3/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박정희 마리아 800-3709 3/10(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9(주일) 오후 5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재훈 필립보 213-700-6983 3/8(토)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482-9108 3/15(토)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판영 레오 818-1799 3/14(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은미 가브리엘라 617-3588 3/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용서와 화해

성당에서 어느날 저는 한 자매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후 고해성사를 보고 용서를 하려고 그 자매께 다가갔지만, 오히려 저를 매정하게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이후로 그 자매에 대한 미움만 더 커졌습니다. 그 자매는 저와 상관없이 성당도 잘 다니고 있는데, 저만 힘든 것 같고 저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용서하라고만 하십니다. 상대방이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신부님의 책에 용서를 용서와 화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용서입니다. 그와 반면 화해는 상호적입니다. 자신만 맘을 돌리고, 나 자신만 뉘우치고, 나 자신만 용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손이 맞잡아져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용서와 화해의 어려움이 더 생깁니다. 어렵게 마음속에 상대방을 용서하여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거부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해로 완성되는 용서는 나 자신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화해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인내와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순 시기를 지내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분은 어찌면 허공에 내밀어 진 화해의 손과 같은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무시하며 지나치지만, 예수님은 화해의 손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완고한 마음을 감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보다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상대방이 잡아 주지 않더라도 먼저 내민 용서와 화해의 손은 우리에게도 자유를 줄 것입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주례성당 주임

성지순례중에 테러라니요...

외인인 남편이 성지순례중에 테러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하느님이 계신다면 이런 사고는 막아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알고도 험한 일이 생기면 하느님께 연성을 높이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인제'의 책임마저 하느님께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세상의 갖은 불상사를 하느님께서 몽땅 책임져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책당하는 주님이 얼마나 억울할까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파악하여 설명할 재간은 없습니다.

그날 그 귀한 여정이 무슨 연유로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맺은 것인지 끝내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고통을 치워주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거칠고 무거운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분이심을 전해주세요.

주님의 정의는 수퍼맨처럼 악의 세력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자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을 알려주세요. 불어서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악의 세력을 이기고 당신께 돌아서기를 기다린다는 사실도 말씀드리세요. 물론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탁하는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느끼게 하도록 행동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장재봉 신부 /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

기웃거리다가

오해를 받으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울화가 치밀죠.

이런저런 하소연도 하게 되지만,

그 역시 변명으로 굴절되기 십상이고.

지난 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도 위안은 되지 못합니다.

연기가 나는 곳엔 그늘음이 얹기 마련,

잘못 없다 말아야겠습니다.

그 언저리에 있었던 허물, 작지 않기.

◆이영 아녜스 / 수필가